

바람 잘 날 없는 소상공인연합회



김승호의
시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집단인가. 소공연에 묻고 싶다.

고물가, 고임금, 저성장, 고비용, 내수 침체, 경쟁 격화 등 소상공인 관련 이슈가 산적한데 언제까지 집안 싸움만하다 허송 세월할 것인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소공연은 이달 29일 5대 회장 선거를 치른다. 선거에는 현재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 모씨와 소공연 감사 출신인 송 모씨가 출사표를 던졌다.

소공연은 직전 회장을 하다 야당을 줄을 대 비례대표로 이번 22대 국회에서 배지를 단 오 모의원이 정치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분란을 겪었다. 오 의원은 소공연 회장을 하기 전부터 더불어민주

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법정단체인 소공연의 정관이 무색하게 조직을 정치판으로 전락시키며 사심을 챙겼다.

국회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오 의원은 현재 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그런데 그가 떠나면서 조직에 남긴 생채기는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덧이 나고 있다.

소공연 내외부 인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고 조직의 정상화를 소리높여 외치면서 점입가경이다.

이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공연이 회원들의 정보를 유출하고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며 중기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은행과 카카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 보고 누락 등 의혹을 제기하며 역시 중기부가 조사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차기 회장 선거 과정에서 지역연합회를 분열시키고 파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운영 규정

보완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판에서 비대위가 나선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조직 정상화'를 명분으로 또다른 '사심'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비대위의 몫이다.

내용을 겪고 있는 소공연 조직을 이끌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이들도 이대론 안된다. 저마다 출마 공약을 내놨지만 지금의 문제를 촉발시킨 '정치적 중립'을 약속한 이는 보이질 않는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기 소공연 회장은 임기 중 정치권에 줄대는 일을 하지 않는 등 조직을 정치판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중기부도 뒷집만 쥐고 있어선 안된다. 전임 회장이 정치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 앞서 진행했던 소공연 내부 감사와 후속조치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후 일부에서 제기한 의혹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조사해 이 역시 모두 공개해야 한다.

소공연이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 제발.

/bada@metrosoul.co.kr

우리만의 '북중미 월드컵'



김연세의
정확사회부

올림픽이 끝나고 다시 축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2026 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이 다음 달 초 시작된다. 본선이 아직 멀게만 느껴지지만 내년 4분기에 48개 진출국(근 100년 역사상 최다·최초)을 16개 조, 각 3개 팀으로 나누는 추첨이 실시된다. 다가오는 월드컵은 2002 한·일 월드컵에 이어 역대 2번째 공동 개최다. 조별리그 및 토너먼트가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경기장에 분산돼 열리게 된다. 공식 명칭에 국가명이 없는 최초의 대회이기도 하다. 영문으로 FIFA World Cup 26이다.

국내에선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한다. 25일 기준 축구협회는 홈페이지에 지난 3월과 6월에 열린 아시아지

역 2차 예선 결과를 올려 놨다. 상당수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이라 소개했다. 멕시코는 중미가 아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에 속한다. 남미와 북미 대륙 외에 중앙아메리카를 따로 떼어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멕시코는 북미로 분류된다. 또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 7개국이 자리해 있는 중미는 국제사회 및 학계에서 대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멕시코보다 낮은 위도의 이 중앙아메리카 7개국도 북미 대륙 소속이다. 멕시코는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차별적 요소가 짙은 탓에 잘 쓰지 않는 라틴아메리카를 들먹여야 한다면 또 모르겠다. 이젠 앵글로아메리카의 미국·캐나다와 라틴아메리카의 멕시코를 기어이 분리할 수도 있다. 라틴아메리카를 순화해 중남미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 탓이다. 그렇다면 '북미 월드컵'은 어떤가. 캐나다

와 미국, 멕시코 3개국만을 북아메리카로 보는 시각도 있긴 하다. 하지만 북미 대륙은 남미 대륙 바로 위의 파나마부터 시작해 그린란드까지 아우른다는 학설이 널리 인정받는다. 따라서 이것도 맞다고 보기 어렵다. 외국 축구팬이 만약 한일 월드컵을 동아시아 월드컵으로 지칭해도 우리는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까.

2030년 FIFA 월드컵은 포르투갈, 스페인, 모로코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걸 뭐라고 부를지 궁금하다. 남유럽-북아프리카 월드컵인가. 아니면 유럽과 아프리카의 경계를 가리키는 지브롤터 월드컵인가. 2026대회 아시아 3차 예선은 내년 6월까지 장장 9개월간 이어진다. 축구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명칭 재정립에 나설 때다. 지난달 파리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소개됐다. 남들은 등간할지 몰라도 당하는 자국민은 불쾌하다.

/세종= kys@

오늘의 운세 8월 26일 (음 7월 2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결정적인 말쑥은 시작으로 시작되니 자식이 투자한다는 것은 금요일 것. 48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0년생 눈이 녹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쓸고 나가보자. 72년생 번민하지 말고 계획을 짜라. 84년생 부부가 화합하라.



37년생 여행계획이 생긴다. 49년생 주식 투자가 잘되어 이득 발생. 61년생 일이 풀리는 듯 하다가 오후에 고인다. 73년생 해마다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축복이다. 85년생 사기꾼들은 먹잇감을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 것.



38년생 예민한 날이나 큰 이익을 얻고 존경을 받는다. 50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심란. 62년생 옳은 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74년생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얻으니 희망이다. 86년생 집안 산소정리에 정성으로.



39년생 태양은 떠 있는데 느끼지 못한다. 51년생 능력을 살려 쉽게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소설을 써본다. 63년생 애상하고 돌아선 상대는 돌아오지 않는다. 75년생 주식 투자로 경제적 손실을 정리. 87년생 지나친 지출은 삼가야.



40년생 돈으로 베풀 능력이 있으니 그 얼마나 다행인가. 52년생 산뜻하게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 64년생 상신이 고달프나 재물을 얻는다. 76년생 하던 일에서 영입실적이 나타나 소득으로 들어온다. 88년생 일할 나이에 무슨 모험인가.



41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인생사 허망. 53년생 중이 절이 싫으면 불평하지 말고 손해 끼치지 말고 떠나라. 65년생 말은 마음을 담는 것이니 곱게. 77년생 이직은 찾기가 힘들 텐데. 89년생 나무에 뿌리가 없다면 나무가 살아나겠는가.



42년생 운기가 좋으니 마음 가는 대로 행동. 54년생 격한 감정이 체면을 구길 수 있는 날. 66년생 눈부신 사랑이 피어나는 열정이 있다. 78년생 아제의 친구에게 힘담하지 않도록 자제. 90년생 집안싸움에 관여해서 옳고 그름을 묻지 마라.



43년생 행운이 찾아오니 자손에게 좋은 일이 있다. 55년생 손해를 본 듯해도 결과는 좋다. 67년생 복권이 되려면 복권부터 사야 순서 아니겠는가. 79년생 남에게 말전주해서라도 손해한다. 91년생 시력이 약화하니 동서구분이 어려울 듯.



44년생 지나친 욕심만 버리면 기분 좋은 하루. 56년생 변화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68년생 병도 약도 내 마음에 있으니 돌파하자. 80년생 공부해 빛나는 미래를 가꾸어가는 일이다. 92년생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 보자.



45년생 성과가 좋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57년생 짙은 파란색이 행운을 줄 것 같다. 69년생 진취적인 행동이 타인의 본보기가 된다. 81년생 걱정이 해결되니 하루의 보람이 오후에 있다. 93년생 노당익장(老當益壯)이란 말이 있으니.



46년생 오후에 의외의 이득을 보게 된다. 58년생 개나리를 보고 불을 느끼지 못하니 서글프다. 70년생 과거 사랑에서 벗어나야 미래가 있다. 82년생 호수가 얼어붙기 전에 떠나야 하는 기러기신세. 94년생 모르는 것을 어찌 깨달으려 하는가.



47년생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다. 59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다. 71년생 자기 개발서를 참고로 어려운 일을 잘 마무리. 83년생 지인의 소개로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95년생 자연계의 질서는 일반적으로 제압하는 경우는 드물다.



김상회의四季 혀 아래 도끼

말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종종 있으며 상대방 듣기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내뱉는다. 별것 아닌 말도 듣는 사람이 기본 나쁘게 말하곤 한다. 그 정도면 말실수에 가까운데 정작 자신은 그런 걸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데 문제다. 상관(官)사주인 사람 중에서 그런 성향이 많은 편인데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이유 모를 불화가 자주 생긴다면 말버릇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관은 정해진 규칙이나 규범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정해진 대로 하는 걸 싫어하고 마음대로 하는 성향이 상관이다.

규칙을 깬다는 건 창조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버릇 때문에 분란을 겪으니 말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말을 강하게 하는 편이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도 하는데 빚을 갚는 것보다는 평소 쌓아놓은 공덕을 말로 인해서 잃는 일이 일어난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기 말버릇을 돌아보는 일이다.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의 시작과 끝은 말이다. 모든 복이 말로 들어오고 모든 화가 말 때문에 생긴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도끼를 휘두르기보다는 말하는 방식만 바꿔도 인생길이 바뀔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무재 칠사가 있다. 돈 들이지 않아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보시를 말한다. 그중 하나가 언사다. 말로 하는 보시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하고 고운 말을 하는 것도 보시에 들어간다. 보시를 베풀면 공덕이 쌓이고 공덕이 쌓이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 죽고 나서 들어갈 묘지만 살피지 말고 팔자의 복은 말버릇에 달려 있으니 자신을 살펴보기 바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7				6
				3		2	8	
7	1						9	
								3
5								7
4		5						9
								6
		8	9		5			
	7			1				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말과말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9	9	1	7	6	2	8
7	8	2	9	2	6	8	9	1
9	6	1	8	8	2	9	2	7
9	7	2	2	8	1	9	6	8
2	8	9	6	7	2	1	8	9
6	1	8	8	9	9	2	7	2
8	9	6	7	9	8	2	1	2
1	2	8	2	6	8	7	9	9
2	9	7	2	1	9	8	8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0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0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